

## 대동사회(大同社會)와 소강사회(小康社會)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脩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鰥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禮記』, 禮運篇)

大道가 행하여지자 천하를 공으로 생각하고 어질고 능한 인물을 선택하여 (천자의 지위를) 전하였으며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을 닦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홀로 자기의 아버지만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노인은 여생을 잘 마칠 수 있게 하며, 장년은 쓰일 곳이 있게 하며, 어린이는 성장할 수 있게 하며,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와 자식 없는 늙은이와 폐질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다 부양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남자는 자기의 직분이 있고, 여자는 돌아갈 자기의 가정이 있다. 재물이 땅에 버려지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사사로이 저장할 필요가 없으며, 노동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하여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간사한 꾀는 막혀 일어나지 않았으며, 절도나 난적이 생기지 않아 바깥문을 닫는 일이 없었다. 이것을 일컬어 大同이라 한다.

○今大道既隱 天下爲家 各親其親 各子其子 貨力爲己 大人世及以爲禮 城郭溝池 以爲固 禮義以爲紀 以正君臣 以篤父子 以睦兄弟 以和夫婦 以設制度 以立田里 以賢勇知 以功爲己 故謀用是作 而兵有此起 禹湯文武成王周公 由此其選也 此六君子者 未有不謹於禮者也 以著其義 以考其信 著有過刑仁講讓 示民有常 如有不由此者 在執者去 衆以爲殃 是謂小康 (『禮記』, 禮運篇)

지금의 세상은 대도가 이미 숨어버리자 천하를 私家로 생각하여 각각 자기의 아버지만을 아버지로 섬기고 각각 자기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사랑하며, 재물과 노동은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며, 大人은 세습하는 것을 예로 여기며, 성곽과 해자로서 견고하게 여기며, 예의로서 기율을 삼아 군신의 관계를 바로 잡으며 부자 사이를 돈독하게 하며 형제사이를 화목하게 하며 부부 사이를 화합하게 하며, 제도를 만들어 田里를 세우며 응맹함과 지혜있음을 어질다 하며, 자기를 위하여 공을 이룬다. 그러므로 간사한 꾀가 이 때문에 일어나고 전쟁이 이것으로 인하여 일어났다. 禹·湯·文·武·成王·周公은 이를 잘 써서 뛰어난 사람들이니, 이 여섯 군자들은 禮를 삼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리하여 義를 밝히고, 信을 이루고, 恥를 밝히고, 仁을 본받으며 겸양을 가르쳐 백성들에게 몇몇한 법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권세자일지라도 제거하였고 백성들은 재앙으로 여겼다. 이것을 일컬어 小康이라고 한다.